

한파 속 태어난 미세먼지 공습 광주·전남 '괴로운 겨울나기'



최근 북서풍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해 광주 도심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주의보만 4회 발령...한건도 없었던 지난해와 대조 중국 고체연료 사용 급증에 북서풍 영향...마스크 판매 늘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호흡기 건강을 해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강풍을 동반한 추위 등이 겹치면서 이종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건도 없었던 미세먼지주의보가 4차례나 발령됐다. 미세먼지 청정지역이었던 전남도 영향권에 들었다.

여름·가을철에는 남풍이나 동풍이 불어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하지만, 겨울철에는 바람이 중국 쪽에 들어오는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중국내 황사 등 오염된 먼지가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때 이른 초겨울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기침을 동반한 감기환자마저 급증하면서 약국과 마트 등에서는 마스크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판매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과 에어코리아 등에 따르면 11월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광주 3회, 전남 1회 등 광주·전남에서 총 4회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측정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달 4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과 22일에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전남은 지난달 8일에 발령됐다.

특히 지난달 22일 광주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주월동 189㎍/㎥ ▲서석동 185㎍/㎥ ▲건국동 183㎍/㎥의 수치를 보이며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인 150㎍/㎥가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전남은 단 한 차례의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본격 난방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태어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중국의 영향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진형아 예방관은 "미세먼지 발생은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는 겨울철에는 중국의 오염된 먼지가 바람을 타고 대거 유입된다"면서 "특히 중국은 위도가 높은 곳이 많아 난방을 많이 하는데, 고체 연료도 많이 써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PM10 미세먼지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대기 동측정소에서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인 PM2.5는 기상조건 등을 따진 뒤 측정소에서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등 외부활동을 삼가해야 하며,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해야 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박찬오 대기측정 담당자는 "전남의 경우는 그동안 인구밀도가 낮고 차량 등도 다른 지역보다 적은 덕분에 미세먼지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으나, 최근 미세먼지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다"면서 "특히 전남 서부권역은 중국과 인접한 탓에 겨울철이면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양이 많을 경우엔 동부권역까지(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균용트럭 들락거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묻었다" 증언 바랑

극락교 인근 둔치 레이더 동원 암매장 탐색

"전조등을 끈 균용 트럭들이 광주 천변에 분주하게 들락거리고 균용 포크레인이 무언가를 파묻고 있었다."

5·18기념재단이 5·18 당시 옛 상무대 인근에 거주했던 김영환(59·전북 익산시) 씨가 지목한 암매장지(광주일보 1월 23일자 6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착수됐다.

재단은 지난 4일부터 이를 동안 김씨가 제보한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인근 둔지에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동원해 탐색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장소는 5·18 당시 옛 상무대에 상주했던 전교사와 가까운 곳이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국방부, 자치단체, 5·18재단 등에 수차례 암매장 장소를 제보했다"며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목적담에 따르면 1980년 5월 24일 비가 오는 새벽 2~4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균용트럭(1t 크기 추정)들이 현 극락교 아랫길로 들어갔다. 다리 아래에서는 균용 포크레인이 모래밭을 파

고 있었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듯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김씨는 당시 상황으로 미뤄 '5·18 희생자들을 파묻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며칠 뒤 현장에 다시 가보니 모래밭은 빗자루로 쓸어 평평하게 정리돼 있었고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땅이 물러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4일 레이더 조사에 참여한 김씨는 "37년 전과는 달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고 나무가 우거지는 등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반드시 유해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18재단은 김씨가 제보한 장소를 포함해 옛 광주교도소 내 4개 구역, 광주공항 인근 전변도 조사했다.

광주공항 인근 전변은 5·18 당시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목으로 암매장지로 지목됐던 곳이다. 지난 1995년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22일 광주시 남구 송암동 분뇨처리장 주변에서는 계엄군이 9구의 시신을 싣고 나주 방면으로 갔다는 진술이 있었다. 레이더 탐지 분석 결과는 약 2주 후 나올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하고도 원상복구 안됐다면

법원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여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택시의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A씨 차량 좌측 앞문과 뒷문, 발판, 필러 등이 파손됐다. A씨는 420만원을 들여 수리했다.

A씨는 "외형상 수리가 완료되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 변형, 내구성 저하, 녹발생 등으로 사고

이전보다 안정성이 저하됐고 이 부분은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부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리를 하고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시세 하락)액도 통산 손해액에 해당한다"며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 회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시세 하락 손해는 통산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센터필러 교환 부분을 중대 손상으로 보고, 시세 하락 손해액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O-157균 우려 햄버거 패티 3000만개 맥도날드 납품

"25년전 유죄 억울" 여운환씨 재심 청구

검찰 수사서 시중 유통 드러나

'햄버거병'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를 포함해 O-157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수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서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M사가 O-157균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M사는 O-157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패티 100만개에서 O-157

균이 검출됐지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조작해 맥도날드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됐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M사는 그럼에도 대장균 오염 확인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패티 전량(3000만개)을 납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여운환(64) 아름다운컨텐츠센터 대표이사가 25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 여 대표를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 P파 두목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여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이날 광주고법에 여운환 대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은 유죄의 결정적인 직접 증거로 박모 조직원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조서'를 들었다. 해당 조서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개재판의 원칙을 규정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심문을 하기도 전에 이뤄진 증인신문은 근거 없는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여 대표는 1991년 홍준표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가 범죄단체 두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으면서도, 검사의 기소내용과 달리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게 여 대표측의 주장이다. 여 대표는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친 끝에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튀김 안주 때문에...잔 던지고 행패 부린 20대 '경찰서행'



○...술안주로 튀김이 먹고 싶었던 20대 취객이 '재료가 떨어져 다

○...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조모(26)씨는 지난 4일 밤 10시45분께 광주시 북구 한 주점에서 주인 김모(여·49)

씨에게 맥주 잔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의 것.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기본 좋게 한 잔 하려고 튀김 안주를 주문했는데 술집 주인이 안된다고 하자 순간 흥분해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뒤늦은 후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읍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매매가 8억원

건물 매매

- 광주 남구 회재로 풍암지구 대로변
- 건평 120평, 토지 154평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수익
- 지하철 2호선앞 역 확정

● 매매가 12억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